



2016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2016 KIA CONVENTION & EXHIBITION

2016. 10. 13^목 - 10. 18^화 울산문화예술회관

일반전시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제 2, 3 전시장)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제 1 전시장)
한국건축가협회상 (제 4 전시장)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전 (제 4 전시장)

특별전시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젊은건축가전
지역건축가전 (국외)
울산건축상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홍보관
주제기획전

세미나

심내건축포럼
특별 심포지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대담
울산건축도시포럼

특별행사


꿈다락 건축문화학교
건축 문화투어
시민참여 프로그램

주최  **대한민국건축가협회**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주관  **대한민국건축가협회**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울산광역시 건축기획

공식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공식후원사  **LG하우시스**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회

후원사 | 일신문화재단,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상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삼한씨원, 주식회사 신한, 초석건축사사무소, (주)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



『2016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사회적 상상 (Social Imagination)을 주제로 울산에서 개최

-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 제35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수상작 전시
- 제11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및 젊은 건축가전,
- 주제기획전 (Post Modanity - 울산의 기억, 울산의 미래)

‘2016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 13일(목)부터 18일(화)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후원하고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배병길)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건축가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는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tion)”이라는 주제 아래 일반 전시와 특별전시, 세미나,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시프로그램으로는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제35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수상작 ▲한국건축가협회상·특별상 수상작 전시 ▲제11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및 젊은 건축가전 ▲주제 기획전 (Post-Modanity-울산의 기억, 울산의 미래) 전시 등이 있다.

또한 1년 앞으로 다가온 2017 서울국제건축대회를 알리는 ▲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홍보관 ▲실내건축포럼 및 특별 심포지엄 등도 개최된다. 이외에도 올해 울산건축상을 받은 건축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건축 문화투어’, 종이접기를 이용한 ‘건축물 모형 만들기’ 등을 통해 건축가와 일반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http://convention2016.kia.or.kr>

사회적 상상 (Social Imagination)

20세기 이래 대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은 이전과 달리 폭넓게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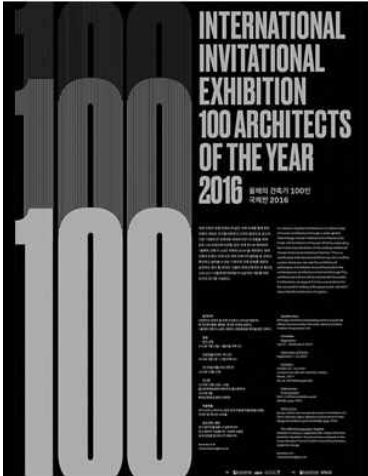
건축가는 전통적으로 건축주의 요구에 맞추어 그 이익과 재산보호를 위한 업무를 맡아왔었지만, 오늘날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건축물이 특정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및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건축가의 역할은 공공적인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축가의 책임은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되었다.

도시는 건축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건축물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도시 사람들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들은 또한 미래의 우리 생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

오늘날 건축가는 건축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까지를 다루게 되었으며, 건조환경은 미래와 연계된 문화적 자산으로서 이를 다루는 건축가는 결국 우리의 **미래 환경**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건축가의 덕목 중의 하나이다. 건축가가 단순히 집짓는 기술자이거나 허가대행자가 아니라 문화자산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건축은 **문화**로서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며, 건축가는 사회적 상상을 통해 현 시대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 봉사한다.

【일반전시】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제1전시장)



주최 한국건축가협회, 국제건축가연맹

주관 한국건축가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월간 「SPACE(공간)」

세계 건축의 흐름 안에서 폭 넓은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 건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기존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전’의 전통을 세계 최초 UIA 공인 국제 전시로 확대하여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을 개최한다.

현대 건축의 트렌드 안에서 전 세계 건축가의 철학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자 건축 문화를 대중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세계 건축계의 큰 행사인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전시】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제2전시장) - 건축의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건축 부문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하여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창설하면서 범 건축인이 참여하는 뜻 있는 국가적 행사가 될 것을 지향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국제 공모전으로 개최하여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건축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자한다.

【일반전시】 한국건축가협회상 (제4전시장)



1979년에 제정된 한국건축가협회상은 매 해당 연도에 완성된 건축가의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을 선정하여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알면전시】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전 (제4전시장)

김종성 건축상 - 대한민국 국적의 건축가가 본 건축상 취지에 맞게 설계한 준공 건축물

무에25년 건축상 - 2016년 기준 준공된 지 25년 이상 경과한 건축 작품 중에서 선정

아천 건축상 - 대한민국 국적의 건축가가 본 건축상 취지에 맞게 설계한 준공 건축물

【특별전시】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제4전시장)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을 제정하였다.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감천문화마을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울돌목 바다가 울다



우수상
(거리마당상)(장관상)
조량이바구길



우수상
(누리쉼터상)(장관상)
DMZ 철새평화타운



우수상
(두레나눔상)(장관상)
한마미복이있는 카페 & 문화교실

【특별전시】 젊은건축가전 (제4전시장)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김현석 준아키텍츠



신민재+안기현 에이엔엘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이승택+임미정 stpmj

우리나라의 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할 우수한 젊은 건축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8년부터 제정하여 수상하고 있는 상으로 ‘2016 젊은 건축가상’으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특별전시】 지역건축가전 (야외전시장) - 사회적 상상으로서의 지역건축

10개 지역 건축가회의의 대표적 완공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각 지역 건축가들의 디자인 역량과 이들의 보편타당성과 특수성을 갖춘 건축미학을 홍보하고, 사회적 상상으로서의 지역 건축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특별전시】 주제기획전 (제3전시장) - Post-Modernity(Modern Urbanity) : 산업도시의 미래

산업도시에서 벗어나 대도시에 적합한 미래도시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를 조명하기 위해 우리는 산업화와 병행된 울산의 도시공간 형성과 변천의 과정을 추적하여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울산의 나아갈 길을 찾아본다. 이는 단순히 울산의 미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도시들의 미래를 찾아보는 것이며, 인류 모두의 미래 삶과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다.

‘울산의 기억’과 ‘울산의 미래’로 명명된 두 개의 세부전시로 구성되며, 울산의 미래전은 인문도시(Human City), 녹색도시(Green City), 압축도시(Compact City)라는 세 개의 주제어(Key Word)를 가지고 입체적인 전시를 하고자 한다.

【세미나】 특별 심포지엄 (세미나실 : 2016/10/17일(월) 오후 2:00) - **울산의 기억, 울산의 미래**

울산개발 반세기의 명암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돌아보는 일은 울산을 포함한 국내 다른 도시는 물론 해외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 던질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미나】 2016 실내건축포럼 (세미나실 : 2016/10/14일(금) 오후 1:30) - **21세기 실내건축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건축은 건설환경에서 건축(문화생성)환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건축가협회 포럼을 통해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한 건축가들의 활동 지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미나】 건축포럼 (세미나실 : 2016/10/17일(월) 오후 5:00) - **현대사회 속에서의 건축가의 역할과 위상**

현 시점에서, 과거 건축가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대적 전환점에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의 건축가의 역할과 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시민체험프로그램】 꿈다락 토요건축문화학교 (세미나실, 야외 : 2016/10/15일(토)~16(일) 오후 1:00~오후 5:00)

학교 밖에서도 문화예술의 정수를 체험하고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3년도 부터 한국건축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시민체험프로그램】 건축답사 (2016/10/14일(금)~17(월) 오후 2:00~오후 5:00 [1일-1회], 회당 40명)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과 울산시민들에게 울산의 건축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민체험프로그램】 종이모형만들기 (2016/10/14일(금)~17(월) 오전 9:00~오후 6:00)

울산에 건축되어진 대표적 건축물을 종이모형으로 제작해봄으로써 건축에 대한 이해증진과 울산의 도시건축을 체험하도록 한다.

【시민체험프로그램】 비누모형만들기 (2016/10/14일(금)~17(월) 오전 9:00~오후 6:00)

2016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포스터를 모티브로 한 모형을 친환경 비누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모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 **행사일정표**

| | 10월 13일 (목) | 10월 14일 (금) | 10월 15일 (토) | 10월 16일 (일) | 10월 17일 (월) | 10월 18일 (화) |
|--------------|-------------------|-----------------------------|-------------|-------------|--|-------------|
| 전시 | 09:00~18:00 | | | | | |
| 시민체험 프로그램 | | 건축답사 14:00~17:00 - 1일 1회 | | | | |
| | | 종이모형만들기 9:00~18:00 | | | | |
| | | 비누모형만들기 9:00~18:00 | | | | |
| | | 꿈다락 토요건축문화학교 13:00~17:00 | | | | |
| | | | | | | |
| 행사 | | 실내건축포럼 13:30~15:30 | | | 특별심포지엄 14:00~16:30 건축포럼 17:00~18:30 | |
| | 개막식 (17:00~18:00) | 시상식 (14:00~16:30) | | | | 폐막 (13:00) |